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황과 사회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정국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갈등을 키워오더니 이제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 겹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 와중에 여당의 부진에 대한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정국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불황’과 ‘과거사’의 순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외면해선 안될 중요한 이슈에 틀림없다. 독립투사보다 일제의 앞잡이가 대를 이어 활개를 치고,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고초를 겪었던 민주투사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신을 거듭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채워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참담할 것이다.

면 정략적인 접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기에 불안한 정치권으로 말미암아 경제상황은 이미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IMF 위기 때보다 제값경기가 나쁘다는 말이 벌써 몇 년 째 들릴 만큼 심각하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심리 역시 얼어붙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점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공장들이 이 땅

을 떠나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고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현지투자를 하길 꺼려하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유효수요가 먼저 진작되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비관적이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경기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마저도 서로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던져진 과거사 청산과 경제살리기는 사실 성격이 서로 다른 주제다.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구조를 타파하는 것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문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지상과제임에 틀림없다.

핵심은 어떻게 이 두 문제를 푸는가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객관적이고 고도 공정한 기준 아래 진행된다면 여든 아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간에 실행되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저신뢰사회에 살고 있다. 남과 북이,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후쿠야마라는 학자는 한국이 외환위기가 초래된 이유를 저신뢰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의 회복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서로 간에 실행되었던 신뢰를 구축한다면 과거사 청산문제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한국문화재보존학회가 서울, 충남·북 지역의 석조문화재를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풍화, 생물, 구조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 위험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서산 마애불을 비롯해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 무려 23건이라 한다. 이들은국보 또는 보물 등으로 지정된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여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무기관인 문화재청이 올 봄 서산 마애삼존불과 정림사지오층석탑 등 4곳을 정밀진단 대상으로 정했지만 실행에 들어간 문화재는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언론이 서산 마애삼존불의 현장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하며 “암석풍화, 절리, 염분, 산성비 등 외부환경에 따른 파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정밀진단으로 구체적인 훼손원인을 빨리 찾아내어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해 정밀조사 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국회 통과, 지자체 예산배정 과정

문화재 보존 포기수준?

을 거쳐야 하므로 일러도 내년 봄 이전에는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비안여론이 쏟아지자 그때서야 연내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밀진단 조사를 하는데도 이렇듯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실행하기까지 하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과 지적이 뒤따라야 할 것인가. 그 사이 해당 문화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즘 어느분야에서나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소리가 높다. 시급을 가리지 않고 절차만을 따지는 정부의 태도가 말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다.

문화재청의 예산집행은 특례를 세워 긴급한 경우 먼저 집행하고 추후 결산하는 등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문화재보존기금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재청이 ‘외형’으로 승격한 만큼 문화재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두는 문체도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형식적인 외형 승격으로 감춰질 사안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기선(전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연대’ 민영

심민섭



뿌리깊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노쇠현상이 일어납니까?

임홍철(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송고한 뜻에 무관심이라니

애초부터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지을 스님의 투쟁은 마치 수레바퀴 자국에 빠진 사마귀가 달려오는 수레와 맞서 싸우는 이란지석(계란으로 바위치기)의 형상이었다 말인가?

지금껏 청와대와 천성산 고수철도 건설 관계자는 5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목숨을 건 스님의 투쟁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배정만 부리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천성산 고수철 관통을 철회하겠다고 참여정부의 일찍이한 정치는 리도 신물이 나지만, 불교계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치민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방패막이요, 위험으로부터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을 스님은 불교라는 가족에 품당고 있으니, 불교계가 지을 스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계종과 불교계 단체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남의 집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똥고기 침입했을 당시 불심으로 똥똥 똥똥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몽고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불교인들의 저력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현 정부의 정책에 항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천성산의 이름 없는 생명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

체들과 함께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공생하는 지을 스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존재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불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민정(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절뚝기 싸움 개탄스럽다

‘완주 봉사사, 조계종 점거로 태고종과 분규’라는 제목의 <투데이뉴스> 기사를 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 60-70년대에도 있을법한 절 뺏기가 2000년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이끌어 가야 할 수행자들이 절을 강제로 점거하고 소송을 벌이는 행태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봉사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찰이 아니다. 그런데도 힘의 논리로 사찰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탐심과 집착, 치심에 물들어 있는 승가의 지부를 드러내는 일임에 틀림없다. 계율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불교의 근본정신마저 뒤흔들 만큼 변화하는 않을 것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진정 책임있는 정통종단이라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국불교와 종단, 스님의 위의를 해친 관계자들을 일벌백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가

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유선기(전북 전주시 노고산동)

승가개혁이 필요하다

속세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져 권력이 분리되어있듯, 조계종의 체제도 총무원 회계원 중앙종회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승가가 이렇게 일반 사회의 정치 논리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조계종은 수많은 종도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지난날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수호하는 스님들조차 권력의 이등과 집중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외중에 실현불교전승가회가 조계종 중앙종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섰다. <현대불교> 기사를 읽으면서 권력을 가진 집단에는 높은 도덕성과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감한다.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계 스스로의 변화 노력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임홍철(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이렇게 들었다 공인의 거짓말

“집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순타니파타)

아테네 올림픽으로 밤을 지새우는 요즘, 한편에서는 과거사 규명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경제, 안보, 고구려(발해)사 문제 등 큰 현안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때아닌 과거사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과거사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이었다는 행적을 은폐하려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어 어안이 빙빙하다.

국민들은 신기남 의원의 부친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좌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부친의 행적을 두루뭉실하게 은폐한 신 의원의 태도는 편리한 이중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친일행위 규명에 앞장서려면 부친의 전력을 먼저 공개했어야 옳았다는 말이다.

<천수경(千手經)>은 10대 죄와 가운데 말로 짓는 죄악이 4가지나 된다고 말한다. 망어(妄語, 거짓말), 기어(綺語, 말림), 양설(兩舌, 이간질), 악구(惡口, 나쁜말)를 살생, 도적질, 음행과 같은 중죄로 여겨다. 지난 대선 때 북한산-천성산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말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될까.

책임지지 못할 바에 침묵하는 것이 낫고, 말을 내뱉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인의 공심(公心)이 아닐까. 지도자의 거짓말이 열령똥방 용납되는 구습이 반복되는 한 개혁과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김재경(해부부 차장)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보우승가대학에서는 초종파적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의식과 경전을 강의할 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학제지명한 교수님들과, 유명 강사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통하여 초보자도 여법히 법법학 의식을 병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1 강의과목 ▶ 경전 연구반(1년) - 스님 및 교임, 교양대학이상을 수료한 불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7시 통시 강의도 가능함) ▶ 의 식 반(1년) - 스님 및 교임, 예비승려, 관심있는 불자 ○ 기본과정 : 6개월, 월, 화요일 오후 4시 ~ 7시 ○ 전문과정 : 6개월, 수, 목요일 오후 4시 ~ 7시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42-0085) 지하철 6호선 창신역하차 7분거리 마을버스 연계됨 (기숙사 60명숙식 가능함 주차장 원비)

3 개강일자 2004년 9월 1일 오후 4시(예정) 추후 수시모집 가능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각반 5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사무처(☎ 02-763-5213)

- * 경전연구반은 원각경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육조단경 선가귀감등 대승경전중 핵심부분을 위주로 강의할 예정임
- * 의식반 기본과정에서는 법당예절, 사물다루는 법, 도량식, 종성,각단예불, 축원, 각단불공등 본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여법히 집전을 할수있도록 쉽게 강의될하며
- * 전문과정에서는 49제, 천도제, 방생의식등에 필요한 제반의식과 바라부, 나비무등의 작법등을 강의함

보우승가대학 학장 합장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회의)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총동문회 스님께서는 무루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날짜 : (음력8월4일)양력 9월 17일

■ 장소 : 불국사 심검당

- 안 건 -

1. 총동문회 회장 선임의 건
2. 사무실 설립의 건
3. 기타안건

문 의 : (02) 353-5016 (노적사)

(055) 944-2093 (거창포교당 심우사)

(011) 547-4001

총동문회장 박종후 합장